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꽃강에서 가을밤 즐겨요”

내달 8~11일…런닝·맥주파티 등 야간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공연·불꽃놀이 마련…가족 참여형 이벤트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 황룡강 가을꽃제가 가을꽃을 배경으로 한 야간 체험과 공연을 앞세워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열린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는 축제 기간이 줄어든 대신 야간 프로그램과 공연,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를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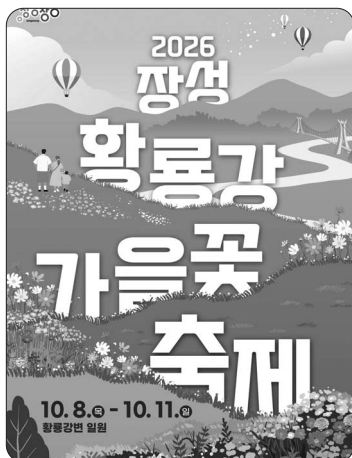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10일 오후 6시 열리는 ‘J-라이트런 & 맥주 파티’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J-라이트런은 황룡강 일원에서 출발해 황미르랜드를 돌아오는

2.5km 코스를 달리며 좀비와 저승사자를 피해 완주하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여기에 맥주와 DJ 공연을 더해 축제의 밤 분위기를 한층 살린다.

참가자는 선착순 500명이며, 참가 신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축제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현장에는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맥주 약 2000잔이 준비된다.

공연도 축제의 주요 볼거리다. 개막일인 10월 8일에는 성리, 장한별,



이수호, 현진우, 아이유 등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9일에는 ‘안녕, 가을 콘서트 The Voice’가 마련된다. 어반자카파와 가비엔제이를

비롯해 퓨전 국악밴드 이로, 현악밴드 모마드 등이 무대에 오른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안녕, 가을 콘서트 The Band’가 펼쳐진다. YB와 2인조 밴드 레드시(C) 등이 출연해 록 음악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각각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다.

공식 축제 안내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개막·폐막 공연과 함께 ‘안녕, 가을’ 콘서트, J-나이트 런 & Beer 페스타 등을 대 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9일부터 11일까지 황미르랜드에서는 하루 세 차례 미술과 풍선아트, 비눗방울 쇼

등 어린이 공연이 열린다. 어린이 뮤지컬 ‘나무들보 킬레스’도 9일 오전 11시 황룡강 일주마에서 선보인다.

황룡강원과 황미르랜드를 오가는 ‘황미르셔틀’도 운영한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토피어리 포토존과 분필아트, 각종 체험·전시도 진행된다.

축제장을 오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이뤄진다.

‘3시간 머물장’은 축제장에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청백리정원과 흥남정원에 설치된 성장이·장성이 캐릭터 에어별과 함께 사진을 찍어 인증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안녕, 가을 콘서트’를 앞좌석에서 관람

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일정 금액 이상 참여하거나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앞좌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황룡강 3.2km 구간을 배경으로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가을꽃을 감상하면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황룡강의 가을 풍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청년센터가 진행한 ‘영광군 청년 음악에 몰들다’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영광, 51개 정책사업에 102억 투입…청년의 내일 키운다

참여·소통·일자리·주거·문화·복지까지 삶 전반 뒷받침
18건 예산 반영…내년 ‘1억 프로젝트’ 추진 창업자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정책 참여부터 취업과 자산 형성, 주거, 창업, 문화·교류까지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참여·소통, 일자리 창출,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51개 사업에 10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의견을 내는 참여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영광군은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명예 부군수제를 운영하고 청년전용예산제를 통해 청년들의 제안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청년 제안사업 18건, 8억4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은 취업 준비 단계부터 주거까지 이어진다. 사회초년생의 운전면허 취득비와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운영한다.

취업 이후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해 취업과 자산 형성, 주거 안정을 연계한다.

창업 지원도 초기 비용을 줄이는 데서 사업 성장 단계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예비·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사업장 임차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청년 팝업스토어를 통해 제품 판매와 홍보, 전시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영광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모델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영광청년육아나눔터에는 청년센터와 청년 팝업스토어, 커뮤니티룸, 네트워크실, 프로그램실, 스튜디오 등이 들어섰다.

청년센터에서는 취·창업과 문화·스포츠, 자격증 취득, 네트워크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기존 지원을 창업과 성장 단계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방향과 실행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년마을과 연계한 주거·공유공간인 ‘늘품빌리지’를 통해 청년의 주거와 교류 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청년 메가챌린지 1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

이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교육과 단계별 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군은 청년명예부군수제 등을 통한 청년의 긍정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올해 제9회 청년친화현정대상 정책대상도 수상했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별 성과와 정책 수요를 점검하고 지원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주거와 자산을 마련하고 창업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수요에 맞는 사업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고흥,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 ‘순항’

공급 완료·예정 464호…수요자별 맞춤형 주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귀농·귀촌인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수요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농촌 보급자리(30호), 고흥스튜디오(23호), 농산어촌 유학시설(6호)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96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공공임대주택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주거 기반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점암면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45호를 조성해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거쳐 전 세대 입주를 완료했으며, 9월에는 고흥읍 스마트 영농빌리지 60호가 준공돼 이달부터 입주

가 본격 시작됐다.

여기에 2027년 준공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50호), 고흥자복지 공공임대주택(150호)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구체화 된 주거지원 사업도 263호에 달한다.

지금까지 공급을 완료했거나 향후 공급이 예정인 주거시설은 총 464호로, 최종 목표인 500호의 약 93% 수준이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도 지속 발굴해 임기 내 500호 조성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 전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앞당겨 시작한다. 군은 접종 대상 2만440여명의 백신을 확보하고, 보건기관 11개소와 위탁의료기관 23개소에서 연명별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연령별 일정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접

종 부위를 달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군민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지소는 읍면별 일정에 따라 접종하므로 방문 전에 접종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대상별 일정에 맞춰 접종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펴보고, 귀가 후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나주 원도심 야간관광 가능성 ‘입증’

가을밤마실 성료…역사문화공간·여가 콘텐츠 결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문화재단이 나주읍성의 역사문화공간에 러닝과 요가, 음악을 더한 참여형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원도심 야간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27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나주읍성 일원에서 열린 야간 문화관광 프로그램 ‘가을밤마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주읍성의 역사문화자원을 배경으로 ‘걷고, 만나고, 머무는 나주의 밤’을 주제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야간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원도심 체류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역사문화공간을 단순히 둘러보는

기존 관람방식에서 벗어나 러닝과 요가, 음악을 결합해 참여자들이 나주읍성 곳곳을 직접 움직이며 원도심의 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나주 첫만남센터에서 출발해 금성관 망화루를 지나 서성문을 반환점으로 다시 첫만남센터까지 돌아오는 ‘달빛 러닝’에 참여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참가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러닝을 진행했으며 서성문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나주읍성의 역사와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러닝을 마친 뒤에는 동헌터 잔디광장에서 야외 스트레칭과 요가를 즐기며 몸의 긴장을 풀었다.



나주읍성에서 열린 ‘가을밤마실’ 참여자들이 달빛 아래 음성 곱목을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문화재단

이어 나주 첫만남센터에서는 DJ 음악과 함께가는 가을밤 네트워킹이 펼쳐져 참여자들이 운동과 휴식, 음악과 교류를 한자리에서 경험하며 나주읍성의 밤을 함께 즐겼다.

이번 ‘가을밤마실’은 역사문화자원을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쉬고, 만나’는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나주읍성의 역사적 공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낮뿐 아니라 밤에도 찾고 머무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군민의 날-유자축제 통합…11월 12일 개최

매년 11월 1일 개최하던 ‘고흥 군민의 날’ 행사가 제6회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통합 개최한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2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축제장에서 제6회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고흥 군민의 날이 열린다.

군은 유자축제장의 주무대와 부속 시설을 공동 활용해 무대 설치비 등 증폭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유사한 시기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통합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계 개최는 군민 중심의 ‘화합 행사’와 외부 관광객 대상의 ‘특산물 축제’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과 향우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52회 군민의 날 행사는 읍면별 특색을 담은 입장식 퍼레이드와 기념식을 시작으로 군민 노래자랑이 이어지며, 파크골프 대중화와 골프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고흥군수배 고흥군민 마크골프대회’ 등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